



장성 황룡강변에 '노란 희망' 심는다
장성군 공직자와 산림조합 관계자, 임업후계자 300여 명은 지난 29일 '제74회 나무심기 행사'를 펼쳤다. 유두선 장성군수(왼쪽)와 김영일 장성군 산림조합장 등 참석자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룡강 제방을 따라 약 240여 주의 산수유를 식재했다. /장성군

'초등영어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앞장

전라남도교육청 모든 초교서 허용
전라남도교육청이 4월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선도적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화)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허용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부가 이드라인에 맞춰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주당 최대 200분이 넘지 않는 범위

에서 적절한 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허용됨에 따라 농산어촌에서는 영어 교육에 목말라했던 학부모의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전남지방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달 집중단속
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구체적으로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1일 (월)
음력 : 2월 26일
수도권 날씨 1 ~ 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3/10, 동두천 -3/10, 파주 -3/10, 서울 1/10, 양평 -1/10, 수원 1/9, 용인 1/9, 평택 -1/10, 백령도 3/9, 가평 -2/8, 인천 3/10

부산시 기장군 '꿈의 암 치료기' 사업 청신호

중입자 가속기 유치사업 서울대병원 이사회 통과 윤상직 의원 "연내 사업 발주 2023년까지 2606억원 투입"

사업 참여기관 분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던 중입자가속기유치사업이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통과함으로써 본격 추진된다. 또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06억원이 안정적으로 투입돼 원활히 추진될 경우 최고의 암 치료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장군 소재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에서 운영할 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지금까지 개발된 방사선 치료기계 중에 가장 부작용이 적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부산시 기장군에 중입자가속기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 기장군에 중입자



윤상직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 29일 서울대병원 이사회를 앞두고 중입자가속기유치사업의 기관별 입장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서울대병원, 부산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상직의원실

가속기치료센터까지 건설했지만 치료기기 국산화 연구 실패와 기종 변경, 자금 부족 등으로 애초 도입 목표인 2017년을 넘겨 사실상 표류 중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9일 중입자가속기유치사업 주관기관이 서울대병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연내 중입자가속기

발주 등 사업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장군이 지역구인 윤상직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06억원이 안정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존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X-선이나 감마선과 달리 정상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히 종양만을 제거하는 최고의 암 치료기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업 주체인 서울대병원, 과기부, 부산시, 기장군이 맺게 될 협약부분에 대한 초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이견 없이 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환우 분들에게 환활기 빛과 같은 중입자 가속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아가 이 사업을 통해 기장군이 미래의 의료관광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metroseoul.co.kr

안산시-시민, 지역화폐 '다운' 홍보 한마음

문화섬 시장 "골목경제 살리기 일한"

안산시가 지역화폐 '다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독특한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동네마다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는 '통장'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통장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다.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 안산시의 지역화폐 명칭은 '다운' 한자로 많을 다(多), 따뜻한 온(溫)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순우리말 중 '애뜻한 사람'의 뜻을 가진 '다솜'이란 단어가 '다운'으로 변형돼 쓰이는 경우도 있다. 안산시 지역화폐 '다운'을 알리기 위해 참여하는 통장



안산시 지역화폐 '다운' 홍보에 나선 문화섬 안산시장. /경기도

은 모두 1,146명. 이들은 '다운'을 알리면서 가맹점 모집도 병행한다. '일당백'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산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10만 명도 가맹점 모집 홍보 요원으로 나섰다. 시 전체 인구 70만 여명의 14.3% 수준이다. 3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2가구 당 1명은 '다운'을 알리기 위해 나선 셈이다. 여기에 체납실태 조사원으로 구성된 '다운 서포터즈' 110여 명도 상품권 홍보와 가맹점 확보 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인천시 지역정보화 사업에 749억

인천시는 올해 749억원을 투입해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능정보로 혁신하는 새로운 도약 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소통하는 전자정부, 데이터 기반의 정보혁신 창출, 지능정보 위주의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획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안전한 시민행복 도시, 스마트하고 살기 좋은 균형발전 도시 등 5개 분야 533개 세부추진사업이 담겨 있다. 또 시는 최근 인천데이터센터 6층 재난상황실에서 제11대 정보화 위원 10명을 위촉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최신 ICT 기술 적용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jj@

"동백유 항천식 효과... 식의약 산업화 기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동신대와 공동연구 특허 등록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동신대학교와 공동으로 동백유(사진) 항천식 효능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해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우선 선점, 동백유의 식의약 산업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허기술은 지난 4년여간 자생 동백의 식·의약산업 소재화 연구를 위한 예비시험 끝에 거둔 성과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와 동신대학교(박대훈 교수) 등 관련 연구팀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 안도산 토종동백 열매에서 추출한 동백유가 천식을 유발하는 염증세포수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연구결과는 지난해 12월 SCI급 국제 저명학술지인 '식물성 의약품(Phytomedicine)'에 게재돼 산업계와 학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동백유는 산업계에서 항장염으로만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동백유의 고급 식용오일 등 건강식품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백나무는 국내 천연림 형태로 628ha에 분포하고 있다. 51%가 전남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그 중 완도지역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봉채영 기자